

박 대통령 수사 대상 포함 여부 등 여야 충돌 불가피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어떻게 진행되나

현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제가 실시된다.

원내 2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확정 한 가운데 원내 1당인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 도입 방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따라서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과 관련 특검은 필요한 절차만 남아있을 뿐 기정사실이 됐다.

특검은 형태가 상설특검이든, 별도특검이든 의결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에 따라 합계 250석을 점유한 새누리당(129석)과 민주당(121석)이 합의한 하반 특검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

최순실 특검 실시가 확정되면 역대 12번째 특검으로 기록된다. 지난 2012년 9월 국회를 통과한 내국동 사저 의혹 특검 이후 약 4년 만이다.

여야가 별도특검에 합의하고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최순실 특검’이 실시되더라도 형식과 수사 범위 등 구체적인 방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별도특검’을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아직 상설특검과 별도특검 중 어느 쪽을 택할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수사 범위와 대상을 놓고도 논란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국민

새누리·더민주 합의하면

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

대통령 공포·거부권 결정

특검 확정엔 역대 12번째

더민주 ‘별도특검’ 요구

대선 정국 주도권 잡기 시도

새누리, 특검형태 결정 못해

정치적 타격 최소화 고심중

여론 수위가 한계를 넘었다는 판단에 특검을 쉽게 동의했지만 정치적 타격은 최소화하려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야당은 이미 대선 정국에 들어선 마당이고, 국민의 정권교체 요구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특검을 통해 최씨 비리는 물론, 청와대의 연루 여부를 파헤쳐 초반 기세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 맞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따라서 야당은 수사 대상에 박근혜 대통령을 반드시 포함시키려 할 것이고, 마지노선을 지키려는 여당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즉 여야가 특검 실시에는 선뜻 합의했지만,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구체적인 각론을 논의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의혹’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한 지 이틀째인 26일 중국인 관광객들이 청와대 앞에서 관망하는 표정으로 본관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에 쏠린 눈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의혹’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한 지 이틀째인 26일 중국인 관광객들이 청와대 앞에서 관망하는 표정으로 본관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 쇄신 심사숙고하고 있다”

박 대통령, 이정현 대표에 사태 관련 심경 전해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 지도부가 요청한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적인 인적 개편 등 국정 전반의 쇄신 요구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대통령은 27일 일정을 축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언가 결단을 내리지 않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26일 새누리당 최고위 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오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당 최고위원회의 입장을 들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 대표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박 대통령과의 통화내용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도 당 소속 의원들

에게 보고했다고 복수의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

앞서 당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 대표 주재로 긴급 간담회를 열어 청와대 수석 참모진과 내각의 대폭적인 인적 쇄신 등을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

최고위는 또 전날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으나 충분치 않다고 보고 이번 파문과 관련한 인사들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와 처벌 등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이 당 지도부의 국정 쇄신 요구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청와대와 내각 개편이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최순실 국내 소환 위한 국제 형사공조 진행”

김현웅 법무장관

김현웅 법무장관은 26일 독일로 출국한 뒤 행방이 묘연한 최순실씨에 대해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국내로 소환하는 절차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법무장관은 내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참석, “최 씨를 체포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

변했다.

김 법무장관은 “지금 소제파악을 하기 위해 형사 공조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도 소환 절차가 마무리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국제 관계에서 쉽게 답변할 성질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법무장관은 여권 무효 조치와 관련해선 “외교부 사안인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청에 中 광저우와 자매도시 20주년 기념 조형물

광주시와 중국 광저우시의 자매도시 20주년 기념 조형물이 26일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 선보였다.

광주·광저우 20주년 기념 조형물 제작식에는 박병호 행정부시장, 조세철 시의회 부의장, 쑤시엔위주(쑤)광주 중국 총영사, 광저우시 발레단, 시민 등이 참석해 두 도시 간 우호증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조형물은 광저우시가 시화(市花)인 목련화(木棉花) 형상을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것이다.



박병호(왼쪽 두번째)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쑤시엔위주(세번째)주광주중국총영사가 26일 광주·광저우 자매도시 20주년 기념 조형물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12월께 20주년 기념식에는 광주 기념 조형물인 ‘도시의 하모니’를 광저우시 백운산공원에 설치할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서울역서 호남선 KTX 이용 가능

앞으로 서울역과 용산역 가운데 원하는 역에서 경부선과 호남선 구분 없이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코레일은 KTX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12월로 예정된 수서발 KTX 개통에 맞춰 서울역에서도 호남선 KTX를, 용산역에서도 경부선 KTX를 탈 수 있도록 열차운행 방식을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는 고양·파주 주민이나, 경춘선 ITX-청춘 이용객, 노랑선·신도림 등 용산역 인근 주민들이 경부선 KTX를 이용할 경우 서울역까지 추가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종로·청량리·동대문 등 서울지하철 1·4호선 이용객이나 공항철도 이용객이 용산역까지 이동할 필요 없이 서울역에서 호남선 KTX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역을

통해 글로벌 관문인 공항철도와 호남선이 직접 연결돼 편리해진다.

KTX 개통 초기에는 열차 운행횟수가 적었고, 대부분의 이용객(92.6%)이 역에 나와 승차권을 구매했기 때문에 이용객 혼란 방지 차원에서 노선별 전용역을 고장했다.

하지만 현재는 KTX가 하루 269회로 개통 초기(143회)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 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시간이 줄었고, 70%에 달하는 고객이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승차권을 사전에 구매하고 있어 전용역 제도를 폐지한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7월 27~31일 이용객 2천827명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74.5%가 ‘서울·용산역 노선 구분 없는 정차에 찬성’했다. /연합뉴스

‘거짓말 할수록 는다’ 뇌과학으로 입증

런던대 연구팀

거짓말은 할수록 늘고 갈수록 커진다는 것을 뇌과학적으로 밝힌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람의 뇌에는 부정직한 행동을 꺼리게 하는 일종의 ‘제동장치’ 역할을 하는 부위가 있는데 거짓말이 반복될수록 그 만큼씩 이 제동력이 줄어들다는 점을 뇌 영상 촬영을 통해 확인했다는 것이다. 뇌가 거짓말을 익숙해지며 별 죄책감 없이 더 큰 거짓말을 하는 악순환이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26일 사이언스 데일리 등의 매체에 따르면, 영국 런던대학(UCL) 심리학과 텔리 사툼 교수팀은 18~65세 자원자 80명에게 일종의 ‘거짓말·보상 게임’ 실험을

시키며 이들의 뇌를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 촬영장치(fMRI)로 촬영, 분석했다.

그 결과 때로 거짓이 시간이 갈수록 능동적이처럼 커지는 이유를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실증적 증거를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러한 이른바 ‘거짓말의 급경사를 미끄러뜨리는 일’은 뇌 측두엽 안쪽에 있는 편도체와 관련 있다. 편도체는 정서적 정보를 통합·처리하는 일에 밀접하게 관여한다. 특히 공포나 불쾌한 감정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해 대처하게 한다.

실험 결과 작고 하찮은 거짓말이나 부정직한 행동을 해도 처음엔 뇌 편도체 활동이 급증했다. /연합뉴스

등록번호: 전남·목포·국제-2013-001

국제결혼 초혼 재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주의 사항

국제결혼 계약시 반드시 시청,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담당자에게 필히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계약하십시오.
* 무등록자는 피해발생시 법적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하십시오.

국제결혼 사고피해대비

① 5,000만원 보장보험 가입업체
② 자본금 보유기준 1억원이상 사형에 신고업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611247-7700
0621372-9777

* 광주·전남·전북 지역 출장상담 가능합니다.

혈당조절

혈당이 왜 안떨어질까요?

ATP10골드 대한민국특허 제0522532호

ATP10골드는 세포에서 인체 에너지(기력)를 10배높인다는 뜻으로 포도당 연소를 통해 발생하며 혈관 속의 넘쳐나는 포도당을 60초 개의 세포 속으로 이동 시켜 에너지를 만들면서 당뇨인의 지친 세포에 활력을 주고 자연스럽게 정상 혈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당뇨특허 2건 등록!

NAVER 백세생활건강 검색

포자세한 내용은 책자, 자료 무료우송

010-3598-7080

농성동 무등산타워 10층 상가매매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뷔페식당 · 사무실 · 병원 등 최적입지

▶ 수의계약진행
감정가 : 32억원
매매가 : 22억원

▶ 전용면적 : 1,070㎡(10층 전체)

국제자산신탁
02-5202-3087
완도금일수협
062-364-2018

이형만영광군항우장학회 장학생 모집

재단법인 이형만영광군항우장학재단은 영광군민 및 재광영광군항우회원 자녀 중에서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고, 자립기반을 제공하고자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I. 지원 자격 및 선발 인원

- ◆ 지원 자격
 - 영광군민 및 재광영광군항우회 회원 자녀 중, 중·고·대에 재학중인 학생
 - 2015년 10. 1 현재 영광군이나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된 자에 한함
 - 영광군민 또는 광주시민으로 무연고, 세대주, 가족주, 개인상황 등 고려
- ◆ 선발 인원 : 00명

II. 선발 방법 및 구비 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 해당학교장 또는 기관장 추천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통장 사본(본인명)

● 구비서류 양식은 이형만영광군항우장학회 카페 http://cafe.daum.net/ihmygg 참고

III. 선발 일정

- 서류접수 : 2016년 11월 1일(월) ~ 11월 21일(월) 17:00까지
- 최종 학정 안내 : 2016년 12월 초순경 발표
- 장학금 지급 및 증서 수여시 : 2016. 12. 재광영광군항우회 총회의 날 (12월말 예정)

IV. 신청 방법

- 우편 · 방문접수
- 신청 및 문의처 : 광주광역시 서구 유림로 100 (동천동 해천빌딩 7층)
- 전화 : (062)522-8422 사무국장 임재강 : 010-8667-6143

V.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됨.
- 관련서류의 제출은 영광군민의 자녀는 영광군청으로, 재광영광군항우자녀는 이형만영광군항우장학회 사무국으로 제출